

지역 소식통

부안 변산면, 지방세 체납 없는 우수마을 감사패 수여

변산면(면장 박현선)은 지난 24일 마을이장,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 없는 마을 만들기에 기여한 우수마을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지방세 체납없는 마을 만들기 우수마을로 선정된 3개 마을은 지방세 체납없는 마을로 빙월마을과 체납진수 정리 및 징수율이 높은 경하리마을과 송림마을 3개 마을이다.

특히 이 마을은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변산면에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체납 징수를 위하여 지난 11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지정·운영하고 마을별 체납징수 실적을 수시 점검하는 등 체납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부과액 49억원중 징수율 91%를 달성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농기센터, 복분자 고사율 줄이기 '총력전'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복분자 고사율 감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농기센터 대강당에서 내병성 복분자와 나무딸기류 재배 시범을 통한 소득화 사업 성과 발표회가 열렸다.

앞서 농기센터는 복분자 안정생산단지 30개소 3만㎡를 만들었다. 또 복분자 무병묘 증식하우스 13개소 4290㎡ 등을 조성했다.

고장복분자 고사율 감소를 위한 연구도 한창이다. 현재 ▲고온성 미생물이 복분자 병해충 방제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전남대 김길용·한연수 교수) ▲복분자 수확 후 현장처리 기술과 복분자 미숙과 이용 캐어풀드 개발(베리엔비)오식품연구소) ▲조작재인에 의한 복분자 세균 및 바이러스 무균주 확립과 대량 생산 연구(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이예지 연구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격포 닭이봉 전망대 새단장

35년 만에… 부안 고려청자 모티브 외관·야간 경관조명 명소 기대

'새롭게 단장한 격포 닭이봉 전망대에 올라 온갖 모래가 반짝거리는 격포해수욕장부터 민선 고깃배들이 넘실거리는 격포항까지 둘러보고 있노라니 새삼 부인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지난 23일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닭이봉 정상에서 새롭게

단장한 닭이봉 전망대와 관련된 과거 추억을 소환하기 위해 찾았다는 김기심(56·부안읍)씨의 말이다.

김기심씨는 "그동안 국립공원 지역에 있어 개발이 제한됐다는 이유로 전망대가 소규모로만 수선되었는데 노후화된 모습을 펼칠 수가 없었다"며 "새

롭게 단장한 닭이봉 전망대를 보니 이제 부안의 랜드마크로 우뚝 선 모습에 군민으로서 기쁨이 끓을 헤아리고 감격해했다.

건축된 지 35년이나 된 닭이봉 전망대는 지난 1988년 변산면도 국립공원 지정과 함께 그동안 격포 체석강 주변

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왔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부안 변산마을 길 및 전북 서해안면 국가지질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서해안의 절경과 주변 천혜의 자연환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투입해 격포 닭이봉 전망대 개·보수사업을 완료했다.

단장을 마친 전망대의 외관은 전체적으로 부안고려청자 형상으로 건축됐으며 꽉대기에는 고려청자 매병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고 건축물 외벽은 고려청자 사발 형상의 타공패널로 둘러져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정읍시청 종회의실에서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각 소관 국·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정읍시,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 가져

정읍시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정읍시청 종회의실에서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각 소관 국·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업무추진 실적과 시정성과를 돌아보고 신속하게 내년도 정책 방향을 정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시정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선 7기 3년 6개월간 크고 작은 시정성과를 공유하고 진척이 더딘 부진사업 등 어려웠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까지 도출했다.

유진섭 시장은 보고회에 앞서 "한해 동안 맡은 업무 외에도 코로나19 방역과 그로 인해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 위드 코로나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온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보고회에서는 6개 국소와 36개 실·과·소별로 추진할 주요 핵심사업과 공약사업, 현안 사업 등 400개 사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과 사업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2022년 핵심 전략 사업으로 ▲내장산 리조트 주변 관광 활성화 사업

▲내장산 문화광장 내 순회 열차, 레일바이크, 범퍼보트 설치사업 ▲디지털미디어 아트센터 조성 ▲동학농민혁명 등상 재건립 ▲제3 산업단지 및 첨단과학산업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내장산 자연휴양림 조성 ▲막걸리(주행) 특화거리 및 한우테마거리 조성 등을 추진 계획이다.

유 시장은 "사업들을 빛一个职业准备 to 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주재원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석진 기자

/정읍=김대환 기자

연말 대비 코로나 방역 강화 민·관 합동 캠페인

정읍시, 방역지침 준수 홍보 연말연시 사적 모임 자체 강력 권고

정읍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유진섭 시장과 시청 공무원, 정읍시 새마을회(지회장 김학구)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샘고를시장 일원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 강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강화된 방역 수칙을 알려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나눠주며, 방역패스 확대 시행

과 시민 3대 방역 행동 수칙을 안내했다.

또 사적모임 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방역 수칙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특히 연말연시 모임과 타 지역 이동 자제, 마스크 착용, 백신접종, 다중시설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에 대한 지역 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전국적인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온전한 일상회복이 또 다시 멀어질 위기"라며 "모두가 협력하는 일상 회복을 위해 이번 연말연시

은 모임·이동 자제와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시작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써 접종을 완료한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므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행사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 접종 완료한 자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하며 장례식과 불잔지도 행사기준을 적용한다.

자세한 다중 이용 시설별 기본 방역 수칙은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성탄절 앞두고 따듯한 이웃돕기 기탁 줄이어

성탄절을 앞두고 고창군에서는 사랑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따뜻한 이웃돕기 기탁이 줄어들고 있다.

신운암면장 오고판 대표(고창군체육회장)가 지난 23일 고창군청을 찾아 500만원을 전달했다.

또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양관식)와 고창지회 회원들이 300만원을 기탁했다.

신립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문원애) 회원들이 200만원을, 한국농업경영인 고창군연합회(회장 이종면)에서 200만원을, 고창원광노인복지센터(센터장 정지윤)에서 100만원을 기탁했

다. 국순당고창명주(대표 김영동)에서는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506만원을 코로나19로 힘들 이웃들을 위해 써 달라며 고창군에 전달했다.

고창전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유재관)와 한국쌀전업농고창군연합회(회장 오정환)에서는 백미10kg을 각각 100포씩을 기탁했다. 고창나우회 청년부(위원장 황태경)에서도 밀군우유 86박스(100만원 상당)를 고창군에 전달했다.

고창군수는 "성탄절을 맞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나눔으로 표현해 주신 기탁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은 모임·이동 자제와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시작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써 접종을 완료한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므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행사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 접종 완료한 자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하며 장례식과 불잔지도 행사기준을 적용한다.

자세한 다중 이용 시설별 기본 방역 수칙은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은 모임·이동 자제와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시작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써 접종을 완료한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므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행사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 접종 완료한 자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하며 장례식과 불잔지도 행사기준을 적용한다.

자세한 다중 이용 시설별 기본 방역 수칙은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 최우수센터 선정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주관 '2021년 농촌진흥사업'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상과 함께 시상금 500만원 받게 됐다.

농촌진흥사업 평가회는 전국의 지방 농촌진흥기관인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한 혁신적인 업무처리와 농촌지도사업의 결과를 평가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신기술보급을 비롯해 농업인의 소득과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농업인 학습단체와 청년 창업 농성, 단풍미인쇼핑몰, 단풍미인대학, 농산물가공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농업인의 기술 보급 만족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뤘다.

/정읍=김대환 기자

은 모임·이동 자제와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시작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써 접종을 완료한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므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행사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 접종 완료한 자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하며 장례식과 불잔지도 행사기준을 적용한다.

자세한 다중 이용 시설별 기본 방역 수칙은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은 모임·이동 자제와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시작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써 접종을 완료한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므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행사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 접종 완료한 자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하며 장례식과 불잔지도 행사기준을 적용한다.

자세한 다중 이용 시설별 기본 방역 수칙은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은 모임·이동 자제와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 시작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써 접종을 완료한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므로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행사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 접종 완료한 자로만 구성 시 299명까지 가능하며 장례식과 불잔지도 행사기준을 적용한다.

자세한 다중 이용 시설별 기본 방역 수칙은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